

IV. 附錄

1. 經濟 關聯 社說 抄錄

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패 방지 조류에 동참 필요성

■ 현실로 다가선 ‘부패라운드’

○ 腐敗 防止에 대한 構造的 改善의 목소리가 國際的으로 높아지고 있음

- 5월 27일 끝난 OECD 36차 각료 회의는 그동안 선언적 주장에 그쳤던 「부패라운드」에 대한 합의와 그 실천을 결의함

· 국제 상거래에서의 뇌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 처벌규정을 담은 국제협약을 올해안에 제정하고 회원국은 내년까지 시행입법을 제정하여야 함

· 이미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적 차원의 부패 방지 문제를 제기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

- 국제적 부패방지 조류에 적응하고 앞장서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서의 부패 방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

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5. 27)

경제 회복에 장애가 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, 정부, 국민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

■ 경제회생과 장애요인

○ 景氣 指標들이 回復勢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不安要素들이 景氣 回復을 위협하고 있음

- 2/4분기 들어 경기 지표들이 회복세로 돌아섬

· 그 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1/4분기 경제성장률도 예상보다 높은 5.4%를 기록함

- 반면 국민들과 기업은 경제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임

· 이는 체감경기가 여전히 바닥권을 맴돌고 있고 국제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

- 또한 정치적 불안과 「6월 대란설」로 대표되는 금융권의 불안정은 경제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

- 경제 회생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, 국민 모두의 노력이 요청됨

(「한국경제신문」, 97. 5. 29)

최근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이 무역수지 적자에서 무역외수지 적자로 바뀌고 있음

■ 무역외수지 적자의 확대

- 최근 經常收支 赤字의 주범이 貿易收支 赤字에서 貿易外收支 赤字로 바뀌고 있음
 - 4월 무역외 수지 적자는 8.8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수준에 달했으며 무역적자 8억 달러를 초과함
 - 무역외수지 적자의 증가는 여행수지 적자의 확대와 국외운항비 지급액 증가에 기인함
 -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씀씀이가 헤프고 기술과 상표 도입 등이 늘어나면서 로얄티 지급이 급증하고 있음
 -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외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수입을 자제하고 무역외 거래에서의 지급액을 줄여나가야 함
 - 과소비 바람이 외국에까지 번져서 외화를 낭비하고 국가이미지까지 떨어뜨리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함
- 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6. 2)

최근의 금리 인하 추세와 임금 상승률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지속적인 고비용 구조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

■ 금리·임금 움직임의 참 의미

- 최근의 金利 下落勢나 賃金 上昇率 鈍化는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임
 - 5월말까지 임금협상을 끝낸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3.8%로 작년 동기의 6.9%에 비해 크게 낮아짐
 -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가 상승률도 작년 4/4분기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짐
 -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격의 하락 움직임이 과연 안정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음
 - 금리의 하락은 부도율의 급증으로 인한 회사채 공급의 감소와 기업 대출 제한으로 자금 여유를 가진 은행의 회사채 수요 증가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임
 - 임금 상승률의 둔화도 불황으로 인해 고용 안정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
 - 이러한 일시적인 금리 하락세나 임금 상승률 둔화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고비용 구조 개선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될 것임
- (「한국경제신문」, 97. 6. 5)